금융위원회	보도참고	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. 11. 2.(월)

글로벌 해킹 위협에 대비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고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– 바이낸스 해킹 관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긴급 점검회의 개최 –

✓ **콜드월렛 보유 비중 및 보험 가입·준비금 적립 현황 긴급 점검**

✓ **비정상 접근 시도 대응철저, 신속한 정보공유 및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 당부**

’26.11.2.(월) **금융위원회는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** 주재로 금융감독원, 금융보안원, DAXA,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**바이낸스**에서 **발생**한 **해킹사고**와 관련하여 **국내 가상자산시장 영향** 및 **가상자산사업자 대응체계 점검** 등을 위한 **긴급회의**를 소집하였다.

지난 **10월 30일**(한국시간)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거래소인 **바이낸스**는 **핫월렛**에서 **약 63억달러**(한화 약 8조원) 규모의 **가상자산**이 **무단 출고**되는 **사고**가 **발생** 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**사고 직후** 바이낸스는 탈취된 **자산**의 **추적** 및 **동결조치**를 진행하고 있으며, **이용자 자산**의 **피해**는 **회사 자금** 등을 통해 **모두 보전**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금번 바이낸스 해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**임직원**의 **업무용 노트북 침해**를 통한 **내부시스템 접근 가능성**이 제기되었고, **거래승인·서명 시스템**에 대한 **비인가 접근**을 통한 출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.

이에 **금융위원회**는 **국내 가상자산사업자**의 **전산 시스템**에 대한 **접근통제**, 핫월렛 등 **지갑 출고 승인·서명체계** 및 **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** 등에 대해 **중점적**으로 **점검**하였다. 특히, 유사한 **침해사고**의 **발생**을 **예방**하기 위해 **①콜드월렛 비중 상향, ②입·출고 상시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인력 확보, ③비정상 접근 시도 보고·공유 등 신속·긴밀한 대응체계 운영, ④준비금 추가 적립 등 즉시 실행 가능**한 추가 **보안강화 조치** 실시 등을 당부하였다.

금융위원회는 **관계기관** 및 **업계**와 **긴밀히 협력**하여 해킹 등 추가적인 **침해사고**를 **예방**하고 **피해 확산**을 **방지**하기 위한 **대응체계**를 **지속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훈	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준	(02-2100-2573)
담당 부서 <공동>	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	책임자	과 장	서나윤	(02-2100-1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예빈	(02-2100-1657)
	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	책임자	국 장	최강석	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	이주영	(02-3145-8162)
	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실	책임자	부 장	허세경	(02-3495-9650)
		담당자	팀 장	김현민	(02-3495-967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